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의 건축교육

Rethinking Our Architectural Education: A practioner's view

김병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
by Kim Byung-Hyun

지난 6월의 UIA 북경대회에서 건축 직업에 대한 국제권장기준이 채택되고 이에 따른 건축교육 프로그램도 제시되면서 우리의 건축교육 개선은 그 시급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그 동안에 국내 학계와 건축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이미 상당수의 학교도 이에 대처한 학제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학제 개편을 포함한 우리 건축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로 이제는 더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러나 교육 년 수가 증가된 5년 또는 4+2 등의 학제와 외국 모델을 따른 프로그램의 채택만으로 그 동안 너무 오랫동안 쌓아 온 우리 건축교육의 무력증과 비만증이라는 만성질환이 치유될 수 있을까? 학제 개선은 당연히 실행되어야 할 가시적인 제도이다. 그렇다고 교육의 개선이 학제개편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는 우리 교육을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었던 많은 여건,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와 태도의 전환이 따르지 않는 한 교육 년 수만 늘린다고 그 제품의 질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건축교육이 당장 극복해야 할 과제는 건축직능이라는 특성상 교육과 실무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할 영역을 억지로 격리시켜 놓고 있는 우리의 관행과 전문교육과 직업 훈련을 혼돈하고 있는 건축계와 사회의 건축교육에 대한 불이해이다.

먼저 겸직금지제도에 따라 대학이라는 성역에 묻혀 있는 귀중한 인적자원을 생각해 보자. 수많은 인재들이 그것도 오랫동안의 최상의 교육과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인들이 대학 교직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은 건축가라기보다 건축학자, 설계 교육자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현실과 격리된 데서 오는 급속한 정신적, 전문적 노화현상을 보여 왔다. 이런 현상은 이 인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도 우리 건축교육에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교육에만 전념하는 이론가, 연구가도 있어야 하겠지만 100% 아들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 젊은 학생들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는 교수들로만 이루어진 학교에서 살아 있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사업주나 행정부처에 자문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서의 사회참여는 이들이 추구해야 할 건축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한 교육이나 전문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위이다.

학계와 업계의 분리는 유능한 건축가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교육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들 건축가들이 학교로 가져올 수 있는 건축의 현실문제를 학생 특히 고학년 학생들이 다룰 기회가 없음은 우리 교육을 더욱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 학과 업의 분리는 현업 건축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학교의 현업 지원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잃고 있다. 우수한 현업 건축가가 반복되는 현실과의 싸움에서 거리를 두고 어느 기간 동안 대학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사고와 가치의 발견을 통한 건축가의 재생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서울의 일부 학교에서 현업 건축가인 초빙교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실무 건축가의 지속적인 교육 참여에서 대학은 우리의 건축에 대한 비평적 담론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사고에의 전환을 유발시키는 원동력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음은 그만큼 강력한 전문교육기관이 되게 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에 대한 건축가의 직능 자체도 재평가 재정립 하여야 할 새로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심화되는 빈부격차의 환경에서 그것도 더욱 격심해 가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건축이라는 직능으로 한평생을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학생에게 이를 어떻게 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건축의 프러러리티도 많고 다루어야 할 분야도 많은 것처럼 학교도 각기 구체적 교육 목적과 방법, 프로그램으로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117개의 대학에서 매년 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양산하고 있는 우리 건축교육이 개편되어 앞으로 몇 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몇 사람의 졸업생을 배출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관망해야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문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전문인들이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기술 또는 기량으로 한평생을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음을 오늘의 현실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전문성 이란 어떤 고정된 대상에서 보다는 융통성과 적응력, 다시 말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보면, 건축 교육도 어떤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보다 학생 개인의 단단한 지적 기초와 가치 체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1985년 당시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건축과장으로 있던 건축가 헨리 콕(Henry Cobb)이 월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 기념 강연 중 건축과 대학교육에 관하여 말하였다.

「본인은 대학내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복합적인 한가지의 연합체 활동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학문과 사변적 연구와 건축 업무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서 오는 강력한 상호 보조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체적 해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현업 건축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으로 현업 건축을 주도한다는데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은 이를 바로 비평적 담론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의 앞날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유익한 활동은 우리 대학이 당연히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모든 전문교육에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문제 -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고도의 기술은 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이 기술력을 이끌고 갈 정신력을 손상하게 되는 점 - 를 우리 자신이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